

고은 불교 대하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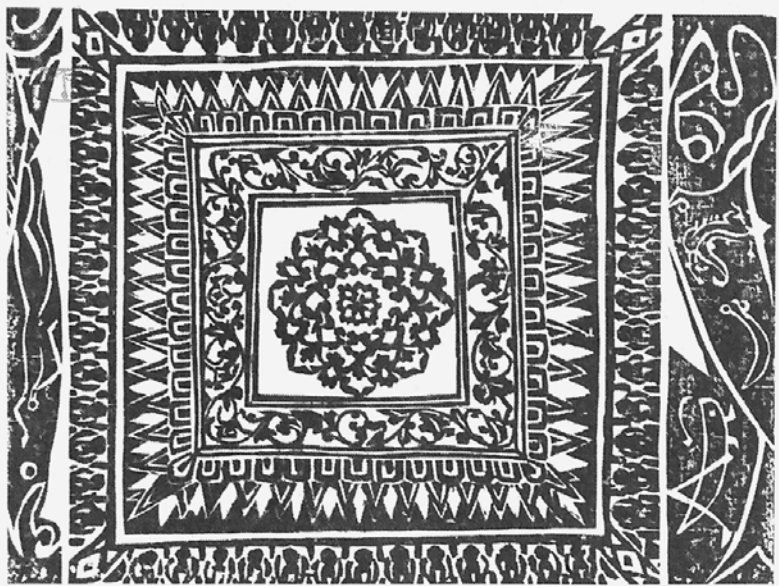


그림 · 조항숙

전생(轉生)

무전의 염승(演嬰)도 하지 않은 그대로의 시신은 일단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가 어떤 파도자락의 밀어올리는 표면장력(表面張力)에 의해서 불속 떠 올랐다. 일체의 상례(喪禮) 따위를 없앤 까닭인즉 태어나거나 죽음이 하나도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수장을 지내는데는 시신을 묶거나 옷을 갈아 입히거나 하는 것은 순제 군더더기의 일이다. 수장의 목적이 그 시신으로 하여금 고기들에게 바치는 구차스러운 공양일 바에는 그나마 일물인체가 가장 좋은 것이다.

어쨌거나 무전이 입고 있던 옷은 파도에 의해서 흘러당 벗겨져 알몸종이일 뿐이었다.

그 시신이 떠올라서 한동안 파도머리를 타고 있는데 곧 그 일대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물 속에는 이미 달려와 몇 바퀴 돌면서 시신에게 덤벼든 큰 고기 한 마리였다. 고기들의 동작에 영향을 받은 작은 고기들도 큰 고기들의 눈치를 보이며 슬쩍슬쩍 시신 가까이 다가들었다가 물러났다 하고 있었다.

무전의 시신은 육체의 해방이라도 실컷 누리려고 있는 것처럼 두 팔과 두 다리가 제멋대로 뻗어나서 너털거리고 있었다. 곧이곧대로 굴어진 뼈도 이런 사나운 파도머리한테는 영락없는 수동체로서의 뛰어난 연골(軟骨)로 바뀌었는지 모른다. 이를테면 무전은 그가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추고 있었다. 파도에 실린 시신의 그 고정될 수 없는 춤이 바로 그랬다.

그러기를 한 시간쯤 지난 뒤에 시신은

갑자기 물속으로 내려가고 없었다. 큰 고기 두어마리가 마침내 시신의 일부를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고기들은 대상에 늘어붙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뜯어먹을 만큼 먹고는 다시 한 바퀴 돌면서 그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시신은 물속에서도 거꾸로 되거나 옆으로 되거나 하며 물속의 자연에 의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벌써 입술 부근의 부드러운 부분이 고기의 먹이로 뜯겨져서 국부도 없어져 버렸다. 배꼽부근도 구멍이 뚫려 있었다.

큰 고기들이 한 바퀴 넓게 원주(圓周)를 그리며 돌아다니는 동안 작은 고기들이 그 원주 안에 들어와 대상에 다가들었다가 단단히 혼자서 달아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무전의 시신이 물속의 조류(潮流)에 의해서나 고기에 의해서나 거덜나는 동안 그 생명이 정지된 육신을 떠난 무전의 아뢰야식(阿賴耶識)은 중유(中有一)에 들어갔다.

이미 죽었으니 그가 살았던 곳이 전생이 되었다. 그 전생의 죽음이 시작된 순간(死有)으로부터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할나(生有)까지의 중간시기의 존재인 영식신(靈識身)이므로 이미 그것은 피와 살에 의해 유지되지 않고 오로지 우주 안의 향(香)을 먹고 살기 때문에 식향(食香)이다.

또한 뜻으로 생기고 뜻으로 이루어지는 화생(化生)의 몸 즉 의생신(意生身)이기도 하다.

바로 이 중유의 몸이 그 행(行)에 의해서 생(生)을 받을 곳이 정해지노라 하면 불가사의한 작용이 있는 정력(定力), 통력(通

力), 차식력(借識力), 대원력(大願力), 법위력(法威力) 등의 힘으로도 그 정해진 바를 바꿀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극히 착한 사람이나 극히 악한 사람은 죽어서 다음 생을 곧장 받기 때문에 중유에 들어있을 겨를이 없다. 무전은 극선도 극악도 아니었으므로 중유의 넋그늘이 되어야 하였다.

만약 그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무전은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태생이 아니라 난생, 한마리 작은벌레가 된 것이었다. 수행자로서는 적지않은 좌천이었지만...

면 비록 먼 곳에서라도 멀고 가까운 차별 없이 태어날 부모가 서로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들어갈 뜻을 일킨다.

남자가 되려면 어머니에게 남자가 될 욕심을 내게 하고 여자가 되려면 아버지에게 여자가 될 욕심을 일킨다.

이런 인연이 뒤바뀌어 둘 다 다른 마음을 일으킬 때 제 몸이 사랑하는 것과 합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부정(不淨)을 쏟아지게 하여 태(胎)에 들때는 비로소 중유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무전의 영식(靈識)은 바야흐로 그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직위를 잡지(攝持)하고 있어서 중유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그 세상의 실재(實在)가 될 수 있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아뢰야식이 망식(妄識)이라고 주장하는 유식사상(唯識思想)이 있고 지론종(地論宗)에서는 진식(眞識)으

로 주장하며 그 한복판에 화엄종의 기신론(起信論)이 진과 망을 화합하는 식(識)으로 종합하기도 한다.

이 중유의 시간이 무전의 전생, 즉 무욕도의 시간으로는 49일 동안이었다.

그가 무욕도에서 의식을 얻어갈 때, 그의 의식이 그의 몸에서 점점 떨어져 나와 멀어질 때 그의 의식 이외의 새로운 아뢰야식은 그의 몸에 모여드는 동료들의 모습을 역력히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의 저쪽에서 있는 아름다운 합두의 모습도 매우 초현실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는 중 그의 아뢰야식이 그의 동료들에게 에워싸인 그 자신의 몸으로 돌아갔다 다시 그곳을 떠나 합두가 서 있는 곳을 휘익 돌아서 다시 멀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무욕도의 생은 끝났다.

그러하여 중유의 영식신으로 떠돌다가 한때 배를 불리고 뜻으로 집을 삼다가 새로운 세상의 부모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태생(胎生)이 아니라 난생(卵生)이었다. 한 마리의 작은 벌레가 되는 절차였다.

수행자가 죽어 벌레가 되는 일은 일단



“ 한 가없는 중생이 어둠의 세상에 가 있다면 그 중생을 제도하러 그 어둠으로 갈 수 있겠소 ”

그곳의 파도머리에서 그의 전생의 시신이 그랬던 것처럼 한 마리 벌레로서 고기 떼들을 잘 피해가며 끝없이 헤엄쳐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삼부주의 남쪽에서 금빛으로 물든 서쪽 우화주 일대의 장엄하기 짝이 없는 광경은 그가 아무리 헤엄쳐가도 언제나 그 까마득한 거리가 조금도 좁아지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차라리 한 마리의 헤엄치는 색다른 종류의 벌레인 무전에게는 수미산의 세계에 바탕이 되고 있는 일곱개의 높은 산맥들은 보이지도 않고 있었다. 그 산맥의 앞쪽이 안개와 같은 어떤 우주의 성운(星雲)의 띠를 두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아아”
라고 무전은 아리타라 벌레답지도 않은 한숨의 한 도막을 물 위에 아주 작은 입을 벌려 토해냈다. 그런 다음 바다의 잔 물을 아주 적은 양만 삼켰다.

“그때 그의 앞에 아주 커다란 고기가 나타났다. 그 고기가 나타났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는 그 고기의 아가리에 다른 고기들이나 벌레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그 큰 고기의 아가리 속은 당연히 캄캄

하였다. 사나운 잇빨 틈에 끼어있다가 고기들이 아작아작 씹혀 죽은 살점들과 함께 내장으로 넘어갔다. 그 고기 속의 길고 긴 내장의 한군데에서 그는 그의 똑같은 다른 벌레들과 함께 어떤 점액질의 분비물에 사정없이 녹아버렸다.

“앗!”
하는 죽을 직전의 비명도 필요없는 죽음을 이었다.

그러하여 무전은 아리타라 벌레로부터 다시 한번 큰 고기 속의 기생충으로 태어나서 그 어둠 속을 그의 당연한 삶의 타전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하였다.

아니 그곳은 인간이 그의 어머니 태안에서 자라고 있을 때의 어느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비슷한 맹목적인 행복으로 차 있었다.

이 고기 속의 내장이야말로 무전에게는 어느덧 고향이 되었다. 다른 기생충들과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갈등이란 어디까지나 그 내장 안의 세계에서 살기 위한 상호간의 일시적인 경쟁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삼부주 인간계의 무욕도에서는 오직 무녀밖에 없었다.

여기는 무욕도이다. 무녀는 합두와 함께 새벽 측시에 깨어났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무전이 큰 고기 안에 늘어붙어있는 새순가락만한 기생충으로 변신(變身)해 있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다.

“어머니! 무전스님이 한참 벌레로 살고 있나!”

“합두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뭇머무새를 추스르고 나서 무녀의 놀리는 말에 의문을 일으켰다.

“왜 그러십니까? 스님.”
“응... 멀리... 먼 세상까지 보이는 일은 공연한 일이기도 하지... 자아 새벽 예불때가 되었지요? 벌써.”

“네 스님.”
“합두스님! 합두스님은 만약 한 가없는 중생이 어둠의 세상에 가 있다면 그 중생을 제도하러 그 어둠으로 갈 수 있겠소?”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드문 대기획에 최고급 인쇄.

- 8절판 (26.5 × 36cm)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울컥려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날권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韓國佛教美術大典 重要내용

- ① 佛教彫刻: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 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실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 ② 佛教繪畫: 한국불교회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 ③ 佛教建築: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 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 ④ 佛教工藝: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기, 기와 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 ⑤ 現代佛教美術: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게재하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하였다.
- ⑥ 世界의 佛教美術: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 ⑦ 佛教美術資料集: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 (02)737-0695
FAX: (02)737-0696

공급처: (주) 한국색채문화사
TEL: (02) 333-0051
FAX: (02) 338-7781